

미국 의회, 북한 압박 고삐 죄다

하원 대북 결의안 발의

북핵 규탄·사드 배치 촉구

추가 대북제재 요구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잇따라 북핵 정문회를 열어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와 별개로 하원이 초당적 대북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겔(뉴욕)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대북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ICBM 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즉각적인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다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다중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또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동맹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필수적 경제 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 및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력지 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연초 네팔 힌두교 축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스와스타니 축제에서 힌두교 신도들이 강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다. 스와스타니 축제는 매년 초에 한 달여 동안 이어지는 힌두교 축제이다. 수백명의 미혼 여성들은 축제 기간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좋은 신랑을 얻기 위해 강물에 머리를 감는다. /연합뉴스

“영화 ‘군함도’는 날조” 시비 거는 일본

산케이신문, 조선 소년 강제징용 부인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이 일제 강제징용 현장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이 배경인 한국영화 ‘군함도’(감독 류승완)에 대해 거짓폭로라고 시비를 걸었다.

산케이신문은 8일 1면 톱기사로 ‘한국 군함도는 지옥도... 탄광에 강제징용의 소년 날조 영화 ‘군함도’로’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며 영화 ‘군함도’ 등을 비판했다.

‘군함도’는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이야기 담은 영화로, 올해 7월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베를린’, ‘베테랑’ 등을 만든 류승완 감독의 차기작이며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산케이신문은 군함도를 지속적으로 묘사한 영화 ‘군함도’의 선전문구, 좁은 공간에

서 채굴작업을 하는 한반도 출신 소년들과 가스 폭발 위기에 처하면서도 작업을 하는 징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예고편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국민을 동원해 하시마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했는데, 영화는 그 운동의 일환이다”고 설명하며 하시마 출신자들이 “거짓 폭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아우슈비츠와는 다르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쟁시 일본 탄광에 조선인 소년광부가 없었다는 것은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는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 정대균 수도대학교교명예교수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림책 ‘군함도-부끄러운 세계 문화유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정 교수는 “조선인 소년광부”는 각광받던 소녀상의 소년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신문의 주장과 달리 하시마 탄광에는 400~600명의 조선인이 끌려갔다. 이들 중 질병, 의사, 탄광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만 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바마는 서핑 삼매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수상 스포츠에 빠져들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영국의 코짜 역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소유한 카리브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고급 리조트로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 카이서서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 브렉시트해도 EU 시민 영국 체류 보장

영국 테레사 메이(사진)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EU 시민의 영국 내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330만 명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었다.

메이 총리는 다른 EU 국가에 사는 영국 국민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만 자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서 “영국에 사는 EU 시민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면서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우리의 공공 서비스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EU 시민이 영국에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른 EU 국가에 사는 120만 영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EU 시민

330만 명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었다. /연합뉴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 주 등 행정명령 되살리기에 나선 연방정부가 팽팽한 힘겨루기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이슬람 7개

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번 심리도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며, 사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같은 사항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쌍암동 중심상업지역 내대지 건축가능(모든업종가) 대지 509.9㎡ 감정가 5억5천5백 ▶ 최저가 3억8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공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정가 2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동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재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9억1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장천동 상가건물(4층) 근린시설 토지 423.1㎡ 건물 1,165.6㎡ 감정가 12억5천 ▶ 최저가 5억6천3백
- ★ [종교시설] 전남 여주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정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양여장]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현양여장시설 토지 6,891㎡ 건물 3,315.5㎡ 감정가 8억8천4백 ▶ 최저가 4억9천5백
- ★ [건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유리 2층 근린주택 (1층 상가) 토지 496.3㎡ 건물 280.67㎡ 감정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신안동 내대지 준주거지역 대지 508㎡ 왕복6차선대로접 카센터 등 투자최적함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합부지 투자기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함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함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 상가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무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 (협의가)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39억 (보3억3천만 월1천8백10만 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3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부근 코너 위치우수 대지 298㎡ 건물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충금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상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6억 (용5억포함)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